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 작가전

내달 10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11월 10일까지 '제17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8~9월 진행된 광주신세계미술제 응모자들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작가 9명의 작품이 출품됐다.

김도경 'My hat'(설치), 김아영 'Singing for us'(회화), 김영현 '기억을 걷는 시간'(회화), 박세희 'nomadic landscape-dwelling'(사진), 신미정 '바람 부는 들판'(회화), 신호윤 'There is no essence-Buddha'(조소), 엄기준 'If and Somewhere'(회화), 이보람 '희생자'(회화), 이연숙 '난인척 하는 파'(설치) 등이 선보인다. 또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비치해 작품 설명과 생각 등도 엿볼 수 있다.

전시기간 중 2차 작품심사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최종 수상자 3명이 결정되며 상금과 개인전 개최가 지원된다. 한편, 신세계갤러리는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평을 적는 '50자평, 나도 평



신호윤 작 'There is no essence-Buddha'

론가'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전시 아트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1271.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백·두보 시로 그린 '가족 이야기'

“역외단교변(驛外斷橋邊·역참의 바깥 끊어진 다리 옆에), 적막개무주(寂寞開無主·주인도 없이 외롭게 피어있네)”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Himalays Museums·관장 이응우) 4층 전시실. 유치원생 30여명이 중국 송대(宋代) 시인인 육유(陸游·1125~1210)의 시를 암송하는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국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복산자'(卜算子)라는 시로 고고한 매화향을 노래한 절창으로 꼽힌다.

대작 78점 전시

미술관측이 마련한 어린이들의 특별한 개막 이벤트는 황영성(74) 화백의 초대전(9월24일~11월7일)에 대한 화답이었다. 그가 선보인 작품 중에는 중국 고사와 유명 시인들의 시를 형상화한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황 화백은 한자 문명의 중심인 중국과도 쉽게 소통했고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의 접점을 만들고 있었다. 한국적인 감성에 서구의 추상적인 느낌을 더해 완성한 황 화백의 예술세계는 글로벌한 흡인력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황영성의 예술세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초대전은 중국에서 그의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전시는 히말라야 미술관 설립자인 젠다이 그룹 회장 겸 전임 관장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결실이다. 상하이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히말라야 미술관측이 3, 4층 갤러리 전 공간을 할애, 무려 78점의 대작을 전시하도록 배려했다. 히말라야 산맥을 형상화한 외관으로 유명한 이 미술관은 중국 당국이 꼽은 15대 미술관에 포함된 사립 미술관 2곳 가운데 하나다. ‘히말라야 산맥처럼 세계미술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 공간은 현지 예술인에게도 문턱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황 화백의 작품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가족, 연인들이 작품 앞에서 휴대전화로 기념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



‘詩·가족 이야기’

황영성 화백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 초대전 이백 ‘장진주’ 두보 ‘곡강’ 마오쩌둥 ‘영매’ 등 한자, 회화로 재해석 새로운 조형세계 선보여



황영성 화백이 상하이 히말라야 미술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었다. 황 화백에게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다만 아니라 자신들이 애송하는 이백의 장진주(蔣進酒), 두보의 곡강(曲江), 공자의 논어, 마오쩌둥의 시 ‘영매’(매화를 노래

한), 중국 고사 등 문자언어가 예술로 재해석된 ‘현장’이기 때문이었다. 황 화백의 농익은 붓질로 빛어낸 캔버스에서 한자의 건조한 필획이 생명력을 가진 예술로 중국인들의 발길을 붙잡

고 있는 것이다.

왕순킷(王純杰) 상해 보통미술관장은 “서예와 현대미술을 접목한 화가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황 화백의 이번 전시는 중국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미술관 왕쉬엔(王雪云) 큐레이터도 “그는 색채와 질감 등에서 중국 전통서예를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글자 쓰기를 회화에 도입, 한중 문화교류의 가능성과 색다른 감상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화백은 물리적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항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줬다. 그를 익히 아는 미술인들은 “현재보다 끊임 없이 진화하는 그의 예술세계가 더 궁금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진화하는 예술 세계

최근의 한자작업을 비롯해 ‘황영성 화풍’을 집약해 보여주는 ‘가족’ 시리즈는 과감한 재료 선택과 기법의 변용 등 형식과 틀에 얽매지 않는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컬러풀한 실리곤, 물감과 석고를 버무린 블록, 철을 활용하는가 하면 종이를 입체적으로 붙인 작품, 먹물로 바탕화면을 처리한 캔버스까지 다양한 변주를 선보였다. 이들 작업은 강박적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황 화백의 기질을 드러내는 창작의 지문이었다.

황 화백은 현재 중국에서 지평을 군건히 다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최고의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베이징 금일미술관 본관 초대전에 이어 히말라야 미술관 초대전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공간에서 잇따라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중국 충칭시 사천미술관과 광저우 Fei 갤러리에서 초대전 개최를 제안받은 상태다.

황영성 화백은 중국 평단의 비상한 주목 받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기반을 다진 만큼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상하이=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구시립합창단 ‘엘리아’ 공연

29일 문예회관 250여명 참여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귀)이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무대에 올린다.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엘리아’는 구약성경 ‘열왕기’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아’의 행적을 다룬 작품으로 신에 대한 민중의 불신과 믿음, 그리고 갈등과 고뇌 등을 담 아낸다.

연주 시간 130분에 이르는 이번 공연은 대구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 교향악단 등 250여명의 단원과 함께 유명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하는 대규모 무대로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 문화 교류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솔리스트로는 지난해 시립합창단이 공연한 ‘카르미나 부라나’에도 출연한 바리톤 엄동욱(엘리아 역)을 비롯해 영국 모탈 오페라단 단원을 거쳐 현재 런던 ‘Music International’ 소속 테너가수로 활동중인 김지현(오버디아 역), 메조 소프라노 양소미(왕비 역), 소프라노 임지현(과부 역)씨가 참여한다.

임한귀 상임지휘자는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엘리아’는 작곡가 멘델스존이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열정과 음악적 깊이가 녹아있는 세기의 명작”이라고 말했다.

티켓은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티켓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www.giart.net)에서 구매하거나 합창단 사무실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062-415-52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소파 식탁 보상판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11월 28일까지

NAVER **홍스페이스**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